

이자역(도시철도)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안천구(효빈)의 철도역 | 2003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4호선 | 빈효선 광역전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1. 개요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4. 일평균 이용객
5. 승강장
6. 연계 교통
7. 기타

이자역(도시철도)		
 		
해운산업지구 방면 이자공원 ← 0.75 km	4호선 (427)	천가방면 서수 1.54 km →
효빈항 방면 리의 ← 1.45 km	빈효광역 (B19)	고남 방면 영색무 2.08 km →
역명 표기		
4호선	이자	IJa
빈효선 광역전철	莉子 / 莉子 / 莉子	
주소		
효빈광역시 안천구 이자동 9-19		
운영 기관		
4호선	효빈교통공사	
빈효선 광역전철	한국철도공사	
개업일		
4호선	2003년 3월 5일	
빈효선 광역전철	2017년 5월 2일	
역사 구조		
지하 3층 (4호선) 지상 2층 (빈효선)		

승강장 구조

[복선 상대식 승강장](#) (4 호선, 빈효선 모두)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4호선 427번 및 빈효광역 B19번, 효빈광역시 안천구 이자동 9-19 소재

2. 역 정보

이자동 택지지구에 있는 도시철도역으로, 효빈에서 승객이 많은 노선인 1호선과 6호선이 환승되는 역이다.

효빈 동부지역에 새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자지역에 지어진 철도역으로, 지역중심지로 고송지구나 중앙로 상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체제로서 자리매김했다가 아예 자체적인 상권으로 성장하는 지역이다. 구도심급인 안천지구대비 신시가지에 해당하여 신도시 느낌이나는 지역이다.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이자역(도시철도) 출구 정보

1	이자사거리
2	이자역 광장
3	4 호선-빈효광역 환승
4	롯데마트 이자점
5	롯데마트 이자점
6	포성초
7	포성초

8	이자 2 동행정복지센터
9	이자여증, 태택초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4	빈효	총합	비고
2020년	25,616 명	22,834 명	48,450 명	
2021년	26,826 명	23,675 명	50,501 명	
2022년	42,178 명	33,051 명	75,229 명	
2023년	42,020 명	35,999 명	78,019 명	
2024년	41,982 명	36,238 명	78,220 명	

단일 노선 순위로 볼 때 4호선 이자역은 4호선 1위로, 빈효광역선에서도 1위로 인근지역 통근수요를 많이 먹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승강장

↑ 서수			
하			상
↓ 탄자			
상	효빈 도시철도 4호선		
하	도변 · 남구청 · 해운산업지구 방면 천가 방면		

↑ 리의			
하			상

↓ 영색무		
상	번호선 광역전철	효빈역 방면
하		약산 · 궁하 · 천주 · 고남 방면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이자역	2, 50, 57, 58, 551, 8000
역방향	이자역(건너편)	02-1, 50-1, 571, 581, 551-1, 8000R

7. 기타

7.1. 역명과 관련된 여담: 사쿠라우치 리코의 역 '梨子'

안천구 이자동에 위치한 이 역은 효빈덕북권의 핵심 역이자, **러브라이브! 선샤인!! 사쿠라우치 리코(Sakurauchi Riko)**의 성지이다.

- 연결 고리:** 이자동(梨子洞)의 유래는 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를 한자로 쓰면 **'梨子(이자)'**가 된다. 이는 사쿠라우치 리코의 이름 한자(梨子)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두음법칙 적용 시 리코 → 이자)
-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리코 역'**으로 불리며, 역사 내 BGM으로 피아노 선율이 자주 흘러나오는 등 역 차원에서도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7.2. 202X년 아이다 리카코 팬사인회 및 김 비서관 '심쿵' 에스코트

HAF(효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간 중, 리코의 성우 **아이다 리카코(리캬코)**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 역을 방문해 팬사인회를 개최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 사건 개요:** 행사 당시 인파가 몰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자, 의전을 담당하던 효빈시청 김 비서관이 아이다 리카코를 보호하며 일본어로 **"리코 씨의 피아노 선율처럼, 우아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는 명대사를 날렸다. 이에 리카코가 얼굴을 빛히며 **'심쿵'**해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다.
- 성우의 반응:** 아이다 리카코는 행사 직후 인터뷰에서 **"제 이름(梨子)이 역 이름이라니 운명 같다"**며 감격했고, 김 비서관을 향해 **"나의 기사님(My Knight)"**이라고 언급해 김 비서관을 '성덕(성공한 덕후)'의 반열에 올렸다.

- **A 씨의 반응:** 이에 고립주의자 A 씨는 에브리타임에 **"세금 받는 공무원이 일본 성우한테 작업이나 건다", "행정 구역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라"**며 비난했으나, 학생들에게 **"질투가 추하다", "김 비서관은 외교를 한 것이다"**라며 반박당했다.